

自我正體感과 外貌를 通한 自己概念 및 個性에 關한 衣服 心理學的 研究

辛玉順・徐鳳延*・李順媛

서울大學校 大學院 衣類學科

A Stud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Ego Identity, Self-perceptions of Dressing Competence and Dressing Conformity

Ok Shoon Shin, Bong Yeun Seu,* Shoon Won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go identity within the framework of Erikson's psychosocial theory of ego development and self-perceptions of dressing competence and dressing conformity.

The following problems have been investigated in this study.

1. The relationship between ego identity and self-perceptions of dressing competence.
2.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ubcategories of identity levels and self-perceptions of dressing competence.
3. The relationship between ego identity and self-perceptions of dressing conformity.

Data were obtained from 242 freshman and 156 senior college students, who each received an ego identity scale and self-perceptions of dressing competence and dressing conformity scale.

The statistical analyses of the obtained data included calculation of the Chi-Square (χ^2) and Means (M).

This study's finding were as follows;

1.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ego identity level and self-perceptions of dressing competence.
2. Significant relationships were found between most of the subcategories of ego identity level and self-perceptions of dressing competence, the exceptions being stability, uniqueness, sense of self.
3. Significant relationships were not found between ego identity and self-perceptions of dressing conformity but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related uniqueness and self assertiveness on one hand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related to self-perceptions of dressing individuality and stability on the other hand to self-perceptions of dressing conformity.

* 서울大學校 社會大學 心理學科

I. 緒論

問題의 提起

人間은 나서 죽을 때까지 衣服을 着用하고 살기 때문에 衣服이란 男女 老少를 막론하고 지대한 關心의 對象이 된다. 이와같이 衣服은 人間生活과 밀접한 關係를 지니는 만큼相互影響도 크다. 衣服의 着用은 着用目的과 動機에서 비롯되어 最近의 研究에 의하면 蓋恥觀念이나 身體保護의 欲求보다 個性이나 社會의 우월성을 나타낼려는 裝飾의 欲求가 衣服着用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¹⁾. 이와같은 身體裝飾의 動機는 社會環境과 관련되기 때문에 Stone(1961)은 衣服을 포함한 外貌의 分析은 個人과 社會의 相互作用過程을 反映하는 部分이며 衣服은 말을 代身하는 承行조건이라는 理論을 提示하기도 했다²⁾. 그러므로 社會生活에 있어 소속의 欲求와 同等의 欲求는 衣服을 通한 同調現象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同調現象은 個性과相反되면서 共存한다고 보며, 한 個人안에서도 兩者가 복합된 狀態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디에 重要性을 두고 衣服을 着用하는가에 對해서 個人的 同調性과 個性이 左右된다고 본다. 이 밖에 衣服의 用途에는 表現的 機能(expressive function)과 道具的 機能(instrumental function)이 있다. 이 중 道具的 機能은 衣服에서 目的志向의(goal-directed)行動의 理想的인 面과 관련이 있다. 즉, 衣服을 通해 個人이 바라던 바를 획득할 수 있고 이것을 획득한 사설들은 着用者로 하여금 安定性(stability)과 安全性(security)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³⁾ 이러한 衣服의 道具的 機能의 主된 價值는 어느 面으로든지 自己의 变貌, 확장에 기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結局, 衣服을 通해 着用者的 性格까지 變化를 가져올 수 있음을 示唆한다. 이것으로 보건대 衣服을 通한 自己概念(self concept)의 形成은 個人的 性格形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本研究에서는 性格的인 面으로서의 自我正體感(ego identity)과 外貌에 對한 自己概念과의 關係를 檢討하고, 아울러 外貌上의 個性 및 同調性과의 關係를 檢討하고자 한다.

II. 理論的 背景

1. 自己概念과 自我正體感

1) 自我・自己概念

現在의 自我와 自己에 關한 大部分의 理論과 研究는

직접 간접으로 William James(1918)의 理論에서 그 起源을 찾을 수 있다. 그는 自己(self)를 經驗的 自己 또는 客體(empirical self or me)로서의 意識經驗의 對象이 되는 것이라 하고 自己의 構成要素로서 物質的 自己(material self), 社會的 自己(social self)와 精神的 自己(spiritual self), 純粹 自己(pure ego)라는 概念을 設定했다. 그는 보다 넓은 意味로서 人間의 自己란 그가 自身의 것이라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의 總和로 보았다.⁴⁾ James이후 現代心理學에서 사용되는 自己(self)는 두 가지 意味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自己自身에 對해 個人이 지니는 態度와 感情으로 定義되고, 다른 하나는 行動과 適應으로 통제하는 一群의 心理的 過程으로 定義된다. 前者를 하나의 對象으로서의 自己自身에 對한 態度, 感情, 知覺 그리고 評價를 나타내므로 “對象으로서의 自己”(self-as-object)의 定義라 부를 수도 있으며, 後者를 思考, 記憶, 知覺등과 같은 一群의 能動的 過程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意味에서 過程으로서의 自己”(self-as-process)의 定義라 부를 수도 있다.

이렇게 自己에 對한 두 概念이 明白히 다르기 때문에 學者에 따라서는 別個의 用語를 사용해서 上述한 바와 같은 一群의 心理的 過程을 지칭해서 自我(ego)라고, 自己自身에 對한 概念體系를 지칭해서 自己(self)라고 하는데, 一部 學者간에는 이 두 用語를 혼용하고 있다.⁵⁾ 예를 들면, Symonds(1951)는 自我라는 것은 一群의 心理過程, 즉 知覺, 思考, 記憶 등이라 규정짓고, 自己를 個人이 自己自身에게 反應하는 方式이라 定하고 한편, 自己라는 것은 ① 自身을 어떻게 知覺하는가? ② 自身을 어떻게 生각하는가? ③ 自身을 어떻게 評價하는가? ④ 여러가지 行爲를 通해 어떻게 自身을 擴充하고 防禦하려 하는가? 등 네 가지 側面으로構成되었다고 보았다.⁶⁾ 또한 Snygg & Combs(1949)는 모든 行動은 行動하는 有機體의 現象의in場”에 의해 決定된다고 했다.⁷⁾ 또 自己의 社會心理的인 面을 強調한 것으로 Cooley(1902)와 Mead(1934)의 自己理論이 있다. 즉, Cooley(1902)는 自己란 他人과의 關係를 말한다고 하고 自己를 어떠한反映的 내지 鏡映的自己(the reflected or looking-glass self)라는 概念으로主張했으며, 社會的 關係란 한 사람의 自己가 特定한 사람에게 어떻게 知覺되는가에 의하여 形成된다고 하여 그 사람이 가지는 自己感情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다고 생각되는 自己의 像에 對한 態度에 따라 決定된다고 하였다.⁸⁾

2) 自我正體感

自我正體感이란 Erikson(1959)의 理論에서 論議되고

있는 概念으로서, 이는 個人的 正體感(personal identity)과 心理社會的 正體感(psycho-social identity)으로構成되었다. Erikson에 의하면 個個人의 正體感이란 時間이 經過함에도 維持되는 個個人의 同質性과 連續性을 保存하는데 有効하다는 事實을 아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對比하여 心理社會的 正體感이란 個個人이 속하고 있는 集團에 대한 一體感을 意味한다고 한다.⁹⁾ 이러한 Erikson의 正體感 概念에 준하여 Mussen, Conger, and Kagan(1970)은 自我正體感을 自身이 他人과 區別될 수 있는 獨自性, 一貫性 内지는 統一感이라 하였으며 또한 過去—現在—未來의 連續性을 維持하는 것이라 定義하였다¹⁰⁾ 또 社會心理的 側面에서 Dignan(1965)은 自我正體感을 社會的 相互作用을 通해서 發展하여 自己를 要사해 주는 自己參照的 像들의 複合이라고 定義했다.¹¹⁾

3) 自我正體感의 心理社會的 効能性

Simons(1970)는 正體感 成就程度가 높은 集團은 肯定의인 自我尊重(self-esteem)과 自我受容의 度를 보이며 現實의임을 表现하였으며,¹²⁾ Bronson(1954)은 正體感昏迷에 있는 사람들은 安定된 自我意識을 가진 사람보다 過去와 現在의 自己概念들 간의 關係가 確實하지 않고 內的 緊張내지 不安이 높으며 支配의인 個個人의 特徵들이 確實하지 않고 自己에 對한感情들이 잘 동요된다고 말하였다.¹³⁾ 또한 Rasmussen(1964)은 Erikson의 自我正體感概念과 實際日常生活에 나타나는 心理・社會的 効能性과의 關係研究에서 自我正體感의 下位構造로서의 自我受容과 自我正體感間에 正的 相關이 있다는 타당한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結果 성공적으로 발달된 自我正體感은 사람이 社會的 環境에 効果의으로 對應해 나가는데 必要하며 正體感昏迷가 있는 사람은 성공적인 心理社會的 適應을 못하여 그가 살고 있는 文化的 여러 요구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Erikson(1959)의 體系의in 性格理論을 支持해 주었다¹⁴⁾ 以上과 같은 여러 自我正體感 概念과 研究들을 살펴 볼 때 自我正體感은 넓게는 全體의in 性格發達 및 自我概念의 變化 그리고 心理社會的 効能性의 關聯性을 보여주었으며, 좁게는 對人關係의 安定性내지 一貫性과 適應에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外貌에 대한 自己概念

衣服이나 外貌에 對한 自己概念(self-idea)은 Horn(1968)에 의하면, ① 다른 사람에게 우리 外貌가 어떻게 비칠 것인가의 想像, ② 他人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對한 想像, ③ 自尊心(pride) 驕憤(mor-

tification)과 같은 自己概念(self-feeling)으로 構成된다고 했다.¹⁵⁾ 이와 같은 理論은 前節에서 記述한 바 自己는 他人과의 接觸에서 社會的으로 形成되는 것이라는 Looley의 社會的 自己理論에서 유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임춘봉(1974)은 대학생의 自己概念과 의 상행위와의 관계 연구에서 의상의 滿足度는 自己概念 要因들과 가장 많은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女大生의 경우 의상의 滿足度는 모든 自己concept 要因들과 肯定의인 相關關係를 가졌으며 이러한 結果는 모든 側面에서의 自身에 對한 滿足狀態가 의상에 反映되고 있음을 意味하며, 特別한 理由 없이 自身의 의상에 對하여 不滿을 나타내고 否定의인 態度를 취할 때 그의 內面的 狀態가 不安하고 무엇인가 否定의인 自己concept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다고 示唆했다.¹⁶⁾ 또한 Reed는 다른 스타일의 衣服을 입음으로서 그러한 스타일의 사람들과 同一視에 의해 그밖의 사람과는 달라보이고 싶은 유효한 特質들을 지니며 그것이 自己의 상징적인 제시자로서의 役割을 한다고 示唆했다.¹⁷⁾

이와 같은 先行研究의 結果에 의하면 衣服은 人間이 社會안에서 社會的 自己를 發達시키고 서로 相互作用하는 部類를 形成하게 하며 이런 人間關係의 面에서 보면 몸차림은 個個人이 그의 像을 存在하게 하거나 그自身을 表現하는데 돕는다. 즉 衣服을 着用한 外貌는 그대로의 自己維持와 確立을 위해서 重要하며 또 自己라는 概念을 形成하는데 強力한 영향력을 구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3. 個性과 同調性

어느 文化에서도 多樣性과 類似性이 共存한다. 그래서 他人이 異質의인 文化圈으로 들어오면 곧 그 文化圈의 사람들과 行動樣式에 있어서 類似하기를 強要당해서 어느정도 類似하게 行動한다. 이런 過程을 넓은 意味의 同調性이라 하는데 이러한 同調性은 人間이 社會에 適應하는데 必要하다.

Deutch와 Gerald(1950)는 規範的 社會的 影響(normative social influence)와 情報的 社會的 影響(informational social influence)으로 區別함으로써 同調의 有用한 定義를 내렸다.¹⁸⁾ 衣服에서의 同調는 前後者를 총괄하나 대부분 後者에 의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流行에 同調하는 경향은 後者의 理論으로 解기 할 수 있다.

同調를 하게 하는 決定要因은 個人 内部의 條件(性格要因)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外界의 條件(狀況的 要因)간의相互作用으로 ①영향받는 行為의 活動의 性格,

② 그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나 集團의 性格, ③ 영향받는 사람自身의 性格등이 있다.¹⁹⁾

人間은 社會와 접할때 주어진 社會의 規範에 어느정도 同調함으로서 社會의 소속감과 自己의 主體性을 얻게 해 준다고 본다. 여기에 反하여 人間은 社會의 成員으로 있기를 원하면서도 또한 個人으로서의 存在이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일방적인 同調性보다는 모든 行動에서 個性과 혼합된 狀態로 共存한다.

Horn(1968)은 同調의 行動은 준거집단(peer group)에 속하고자 하는 소속의 欲求의 발로이며 特別한 상황에 있어個人이 그自身的 ability에 대해 어느정도 自信을 갖고 있느냐의 여부와 社會的 압력에 左右되며 同調함으로써 安定性과 安全性을 갖게 해 준다고 볼수 있다. 反面 個性的 行動은 自己의 준거집단 보다는 다른 위치의 存在이고 싶은 欲求의 발로이며 獨立性과 自信感의 程度에 左右되며 同調와 共存한 狀態에서의 個性은 自信感과 肯定의 方向의 自己를 確立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示唆했다.²⁰⁾

4. 外貌上의 個性과 同調性

外貌 혹은 衣服上의 個性이란 준거집단과는 無關하게 즉 獨立的으로 衣服을 着用하려는 意圖를 말한다. 이와 反對로 外貌上의 同調性이란 준거집단의 認定된 衣服規範에 따라 衣服을 着用하려는 意圖를 말한다.²¹⁾

Russell(1960)은 青年期의 少女들은 그들의 衣服에서 그들이 더 성숙하거나 自信感을 강하게 發達할수록 준거집단에 대해 적게 同調한다고 示唆했다.²²⁾ 그리고 Allport와 그의 동료들은(1960) 美的인 價值觀을 지닌 사람은 自己종족과 個性主義인 경향이 있다고 했다.²³⁾

Aiken(1963)에 의하면 衣服에 對한 同調性과 性格의 價值尺度와의 關係研究에서 衣服에서 同調성이 높을수록 양심적이고 도덕성이 높고 사교적이고 복종적으로 나타났다.²⁴⁾

이것으로 보아 個性的으로 衣服을 使用하는 사람은 社會나 集團 압력을 극복하기 위하여心理的 安全性이 높으며個人的 確信에 대한 강한信念을 지녀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衣服을 着用할 때는 獨立心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慾求의 表現인 個性과 他人으로부터 認定을 받고자 하는 慥求의 表現인 同調性的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갈등은 여러 傷行과個人의 性格自體에 의해 自己나름의 方向이 定해진다고 볼 수 있다.

III. 研究의 目的과 內容

本研究에서는 個人的 性格이 衣服着用에 投射되는지의 여부에 중점을 두고 外貌에 對한 自己概念과 個人的 自己概念의 統合인 自我正體感과의 關係를 紋明하는데 目的이 있다.

本研究의 具體的인 目的是 다음과 같은 假說을 檢證하는데 있다.

1. 自我正體感 水準과 外貌에 對한 自己概念은 關係가 있을 것이다.

Erikson(1959)에 의하면 自我正體感은 自己의 側面뿐만 아니라 自我의 側面을 包含하므로 外貌에 對한 自己concept과는 關係가 있을 것이라는 假說 1과 2가 設定되었다.

2. 自我正體感 下位尺度와 外貌에 對한 自己concept은 關係가 있을 것이다.

3. 自我正體感 水準과 外貌上의 個性同調性은 關係가 있을 것이다.

Horn(1968)이 外貌上의 個性은自身的 自信感과 個人的 確信이 강할수록 강하게 나타난다고 示唆한 것에 의해서 假說3이 設定되었다.

IV. 研究方法

1. 調查對象

本研究에서는 男女共學大學校와 女子大學校의 女大生 1學年과 4學年을 對象으로 470名의 女大生을 無選標集하여서 調査했으며 그 중 최종적으로 쓸 수 있는 資料로 남은 應答者數는 398名이었다.

2. 檢查道具

本研究에서 使用된 道具는 自我正體感検查와 外貌에 對한 自己concept과 外貌上의 個性 同調性検查로서 그構成要素는 다음과 같다.

A. 自我正體感検查

本研究에서는 徐鳳延(1974)이 製作한 自我正體感検查를 大學生의 實情에 맞게 部分으로 問項을 修正하여 使用하였다. 이 檢查는 「安定性」「目標志向性」「獨特性」「對人役割期待」「自己受容」「自己主張」「自己存在意識」「對人關係」등 8個의 下位尺度로 構成되어 있으며 각 問項은 4點尺度法으로 되어 있다.

B. 外貌에 對한 自己concept과 外貌上의 個性・同調性檢

查。

本研究에서 外貌에 對한 自己概念과 外貌上의 個性・同調性検査紙중 個性・同調性에 관한 問項은 Mary Louise, Selker(1962)가 使用한 "clothing conformity inventory concerning self"에서 選擇했다. 外貌에 對한 自己概念은 外貌에 對한 「自己滿足」과 「自己評價」를 그 構成內容으로 보고 Anne M. Creekmore(1966)의 "Measurement of Clothing Variables"를 참고로 問項을 製作한 후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問項分析은 各 問項의 點數를 토대로 上・下集團으로 나누어 各 問項의 变異도를 chis-square (χ^2)로 $p < .20$ 以下の 問項만 골랐다. 또한 이 檢査는 「外貌에 對한 自己滿足」, 「外貌에 對한 自己評價」, 「外貌上의 個性・同調性」등이 構成要素로 되어있으며 各 問項은 5點尺度法으로 되어 있다.

3. 實施節次

本 調査는 1977年 9月에 研究者가 直接 6個 大學校를 방문하여 檢査紙를 배부 실시하고 이를 회수했다.

4. 資料分析

本研究의 假說을 檢證하기 위하여 自我正體感과 外貌에 對한 自己概念, 外貌上의 個性・同調性的 平均을 내고 그 平均을 中心으로 上・下集團으로 나누어 χ^2 分算出했다.

V. 結 果

1. 自我正體感 水準과 外貌에 對한 自己概念과의 關係

假說 1 : (自我正體感水準과 外貌에 對한 自己概念과의 關係가 있을 것이다)을 檢證하기 위하여 自我正體感全體尺度의 得點을 根據로 한 自我正體感 水準과 外貌에 對한 自己概念과의 關係를 檢討하고자 한다. 그리고 편 이상 모든 表안에서는 自我正體感水準을 心理變因, 外貌에 對한 自己概念, 外貌上의 個性・同調性을 衣服變因으로 表示하기로 한다.

<表 1-1>에 의하면 全體集團中 自我正體感水準이 높은 集團에서 外貌에 對한 自己概念이 높은 학생이 122명 (36.6%)이고 낮은 사람이 72명 (18.1%)인데 比해서 自我正體感水準이 낮은 集團에서는 外貌에 對한 自己概念이 낮은 사람이 121명 (30.4%)이고 높은 사람이 83명 (20.9%)이다. 이것은 自我正體感 水準이 높은 集團은 外貌에 對한 自己概念이 높은데 比해서 낮은 集團은 外貌에 對한 自己概念이 낮음을 말해준다. ($\chi^2 =$

<表 1-1> 自我正體感水準과 外貌에 對한 自己概念과 外貌上의 個性과의 關係

衣服變因\心理變因	自己概念			個 性		
	下	上	計	下	上	計
上	72 (18.1)	122 (30.6)	194 (48.7)	90 (22.6)	104 (26.1)	194 (48.7)
下	121 (30.4)	83 (20.9)	204 (51.3)	93 (23.1)	111 (28.2)	204 (51.3)
計	193 (48.5)	205 (51.5)	398 (100)	183 (45.7)	215 (54.3)	398 (100)

$$\chi^2 = 19.62 \quad df = 1$$

$$P < .005^{***}$$

*** $P < .005$ $\chi^2 = 7.88$ ()內는 %임.

19.62, $p < .005$) 自我正體感 水準과 外貌에 對한 自己概念의 下位尺度와의 關係를 <表 1-2>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2> 自我正體感水準과 外貌에 對한 自己概念 下位尺度와의 關係

衣服變因\心理變因	自己滿足			自己評價		
	下	上	計	下	上	計
上	73 (18.3)	121 (30.4)	194 (48.7)	61 (15.3)	133 (33.4)	194 (48.7)
下	132 (33.2)	72 (18.1)	204 (51.3)	95 (23.9)	109 (27.4)	204 (51.3)
計	205 (51.5)	193 (48.5)	398 (100)	156 (39.2)	242 (60.8)	398 (100)

$$\chi^2 = 29.19 \quad df = 1$$

$$P < .005^{***}$$

*** $P < .005$ $\chi^2 = 7.88$ ()내는 %임.

自我正體感 水準과 「自己滿足」은 $\chi^2 = 29.19$ ($p < .005$)이고, 「自己評價」와는 $\chi^2 = 9.55$ ($p < .005$)로意義 있는 關係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結果는 自我正體感 水準과 外貌에 對한 自己概念은 關係가 있을 것이라는 假說 1을 肯定的으로 支持한다.

2. 自我正體感 下位尺度와 外貌에 對한 自己概念과의 關係

假說 2 : (自我正體感 下位尺度와 外貌에 對한 自己概念은 關係가 있을 것이다)를 檢證하기 위하여 自我正體感 下位尺度와 外貌에 對한 自己概念과의 關係와 外貌에 對한 自己概念의 下位尺度와의 關係를 檢討하기로 한다.

〈表 2-1〉 自我正體感 下位尺度와 外貌에 對한 自己概念과의 關係 (N=398)

心理變因	安 定 性			目標志向性			獨 特 性			對人役割期待		
	下	上	計	下	上	計	下	上	計	下	上	計
衣服變因												
上	103	92	195	84	115	199	95	88	183	80	134	214
下	93	110	203	110	89	199	99	116	215	115	69	184
計	196	202	398	194	204	398	194	204	398	195	203	398
	X ² =1.95 df=1 NS			X ² =6.80 df=1 P<.01**			X ² =1.36 df=1 NS			X ² =24.98 df=1 P<.005***		
心理變因	自 己 受 容			自 己 主 張			自 己 存 在 意 識			對 人 關 係		
	下	上	計	下	上	計	下	上	計	下	上	計
衣服變因												
上	85	115	200	73	134	207	81	105	186	81	105	186
下	116	82	198	122	69	191	113	99	212	114	98	212
計	201	197	398	195	203	398	194	204	398	195	203	398
	X ² =10.30 df=1 P<.005***			X ² =32.53 df=1 P<.005***			X ² =3.77 df=1 NS			X ² =4.15 df=1 P<.05*		

*P<.05 X²=3.84**P<.01 X²=6.63***P<.005 X²=7.88

〈表 2-2〉 自我正體感 下位尺度와 外貌에 對한 自己概念 下位尺度와의 關係 (N=398)

心理變因	自 己 滿 足			自 己 評 價		
	X ²	df	P	X ²	df	P
安 定 性	1.49	1	N.S.	1.55	1	N.S.
目 標 志 向 性	11.63	1	P<.005***	8.88	1	P<.005***
獨 特 性	0.21	1	N.S.	4.90	1	P<.05*
對 人 役 割 期 待	24.70	1	P<.005***	14.3	1	P<.005***
自 己 受 容	24.20	1	P<.005***	7.02	1	P<.01**
自 己 主 張	40.3	1	P<.005***	9.06	1	P<.005***
自 己 存 在 意 識	0.43	1	N.S.	5.12	1	P<.05*
對 人 關 係	4.26	1	P<.005***	10.85	1	P<.005***

* P<.5 X²=3.84** P<.01 X²=6.63*** P<.005 X²=7.88

〈表 2-1〉과 〈表 2-2〉에서 나타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目標志向性」과 外貌에 對한 自己概念간에는 $X^2=6.80$ ($p<.01$)이다. 外貌에 對한 自己概念의 下位尺度別로는 「自己滿足」이 $X^2=11.63$ ($p<.005$)이고 「自己評價」는 $X^2=8.88$ ($p<.005$)으로 意義 있는 相互關係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目標志向性」이 높은 사람은 外貌에 對한 自己概念이 높다는 것을 示唆한다.

둘째, 「對人役割期待」는 外貌에 對한 自己概念과 $X^2=24.98$ ($p<.005$)로 有義의인 關係를 보였으며 外貌에 對한 自己概念의 下位尺度인 「自己滿足」과는 $X^2=$

24.70 ($p<.005$)이며, 「自己評價」와는 $X^2=14.30$ ($p<.005$)로 나타나 「對人役割期待」가 높을수록 外貌에 對한 自己concept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自己受容」은 外貌에 對한 自己concept과 $X^2=10.30$ ($p<.005$)로 意義 있는 關係를 나타냈으며, 外貌에 對한 自己concept의 下位尺度別로는 「自己滿足」이 $X^2=24.70$ ($p<.005$)이고 「自己評價」는 $X^2=7.02$ ($p<.01$)로 「自己受容」은 두 下位尺度에서 모두 意義 있는 關係를 보였다.

넷째는 「自己主張」으로 外貌에 對한 自己concept과의

關係는 $X^2=32.53$ ($p<.005$)로意義 있는關係를 보여 주고 外貌에 對한 自己概念의 下位尺度別로는 「自己滿足」과의 關係가 $X^2=40.3$ ($p<.005$)이고 「自己評價」와는 $X^2=9.06$ ($p<.005$)로서 「自己受容」과 두 下位尺度와는意義 있는關係를 보여 주었다.

다섯째, 「對人關係」는 外貌에 對한 自己concept과의 關係에서 $X^2=4.12$ ($p<.05$)로有意的인 關係를 나타내었고 外貌에 對한 自己concept의 下位尺度中에서 「自己滿足」과 「對人關係」와의 關係는 $X^2=4.26$ ($p<.05$)이고 「自己評價」와는 $X^2=10.85$ ($p<.005$)로有意的인相互關係를 나타내었다.

그리나 「安定性」, 「獨特性」, 「自己存在意識」은 部分의으로 關係가 있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나自我正體感

下位尺度와 外貌에 對한 自己concept과는 關係가 있을 것이라는 假說 2는 部分의으로 肯定되었다.

3. 自我正體感 水準과 外貌上의 個性 同調性과의 關係

假說 3: (自我正體感 水準은 外貌上의 個性·同調性과 關係가 있을 것이다)을 檢證하기 위하여 自我正體感 全體尺度, 下位尺度와 外貌上의 個性·同調性과의 關係를 檢討하기로 한다.

<表 1-1>에 의해 全體적으로自我正體感 水準과 外貌上의 個性·同調性은 相互關係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自我正體感下位尺度와 外貌上의 個性과의 關係는 <表 3-1>에 나타난 바와 같다.

<表 3-1> 自我正體感 下位尺度와 外貌上의 個性과의 關係 (N=398)

心理變因	安 定 性			目標志向性			獨 特 性			對人役割期待			
	下	上	計	下	上	計	下	上	計	下	上	計	
衣服變因	上	113	82	195	96	103	199	79	104	183	108	106	214
	下	79	124	203	98	101	199	118	97	215	86	98	184
	計	192	206	398	194	204	398	197	201	398	194	204	398
			$X^2=14.43$				$X^2=0.04$				$X^2=5.43$		
			$df=1$				$df=1$				$df=1$		
			$P<.005***$				N.S				$P<.05*$		
心理變因	自己受容			自己主張			自己存在意識			對人關係			
	下	上	計	下	上	計	下	上	計	下	上	計	
	上	95	105	200	79	128	207	98	88	186	93	93	186
衣服變因	下	101	97	198	112	79	191	99	113	212	101	111	212
	計	196	202	398	191	207	398	197	201	398	194	204	398
			$X^2=0.49$				$X^2=16.48$				$X^2=1.42$		
			$df=1$				$df=1$				$df=1$		
			N.S				$P<.005***$				N.S		

* $P<.05$ $X^2=3.84$

** $P<.01$ $X^2=6.63$

*** $P<.005$ $X^2=7.88$

<表 3-1>에 의하면 첫째, 「安定性」이 높은 集團에서 外貌上의 個性이 높은 사람이 82명, 낮은 사람이 124명이고, 「安定性」이 낮은 集團에서는 個性이 높은 사람이 113명이고, 個性이 낮은 사람은 79명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安定性이 높을수록 外貌上의 個性의 反對抽인 同調性이 높다고 할 수 있다. $X^2=14.43$ ($p<.005$)

둘째, 「獨特性」과 外貌上의 個性과는 $X^2=5.43$ ($p<.05$)이고, 셋째 「自己主張」은 外貌上의 個性과의 關係가 $X^2=16.48$ ($p<.005$)로有意的인相互關係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意義 있는關係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對人役割期待」, 「對人關係」에서는 外貌上의 個性의 反對抽인 同調性과 關係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불 때 全體적으로自我正體感水準과 外貌上의 個性·同調性과 關係가 있을 것이라는 假說 3이 負定되었지만,自我正體感 下位尺度別로는 「獨特性」, 「自己主張」에서 外貌上의 個性과 關係가 있으며, 「安定性」은 外貌上의 同調性과 關係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部分의으로 肯定되었다.

VI. 論 議

이제 本 研究에서 얻은 主要結果를 中心으로 몇가지 問題點을 論議하고자 한다.

첫째, 自我正體感水準과 外貌에 對한 自己概念과는 自我正體感水準이 높을수록 外貌에 對한 自己概念이 높은 意義있는 關係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結果는 外貌에 對한 自己概念의 下位尺度인 「自己滿足」과 「自己評價」가 自己概念이 높을수록 衣服에 對한 滿足度가 높다는 임춘봉(1974)의 研究結果와 外貌에 對한 自己概念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 外貌가 어떻게 비칠 것인가의 想像, 他人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對한 想像과 自己感情으로 構成된다는 Horn(1968)의 外貌에 對한 自己理論의 側面을 支持해 준다.

둘째, 自我正體感 下位尺度 水準중 「目標志向性」, 「對人役割期待」, 「自己受容」, 「自己主張」, 「對人關係」의 水準이 높을수록 外貌에 對한 自己概念이 높게 나타났으며, 外貌에 對한 自己concept의 下位尺度인 「自己滿足」과 「自己評價」와도 모두 意義있는 關係를 나타냈다.

이것은 外貌에 對한 自己concept이 社會心理의 인面으로서 自己concept 즉 自我正體感 理論과 關係가 있으며, 특히 「對人役割期待」, 「對人關係」와 外貌에 對한 自己concept과의 有意의 關係는 自己를 어여한反映的 내지 鏡映의 自己(the reflected or looking-glass self)라는 概念을 主張한 Cooley(1902)의 社會的 自己理論을 衣服에 도입시킨 Horn(1968)의 外貌에 對한 自己concept을 支持할 수 있는 結果이다.

셋째, 自我正體感 水準과 外貌의 個性·同調性과는 意義있는 關係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와 같은 結果는 성숙도와 自信感이 강할수록 준거집단에 적게 同調한다는 Russell(1960)의 研究結果와 相反된다. 이것은 Erikson(1959)의 自我正體感 理論이 自己一貫性을 말하는 個人的 正體感과 個人이 속하고 있는 집단에 對한 一體感을 말하는 心理社會的 正體感으로 構成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準한 自我正體感尺度의 構成이 個性과 關聯된다고 생각되는 心理社會的 正體感을 다 함께 包含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自我正體感 下位尺度와 外貌上의 個性·同調性과의 關係에서는 「獨特性」, 「自己主張」이 높을수록 外貌上의 個性이 높게 나타났고, 이것은 Horn(1968)이 個性的으로 衣服을 着用하는 사람은 社會나 준거집단 압력을 극복하기

위해 個人的 確信에 對한 강한信念을 지녀야 한다고 示唆한 것을 支持해 준다.

自我正體感 下位尺度中 「安定性」이 높을수록 外貌上의 同調性이 높은 것은 同調를 함으로써 安定性을 가질 수 있다는 同調의 一般的인 効果를 認定하게 해 주었다.

이외에 本研究에서는 Erikson의 自我正體感 確立程度는 연령에 따라 다르다는 理論에 의해, 確立되는 過程인 大學生 一學年과 確立된 4學年을 나누어서, 또한 環境的 要因이 다른 男女共學大學과 女子大學으로 集團을 나누어서 自我正體感 水準과 外貌에 對한 自己概念, 外貌上의 個性·同調性과의 關係를 比較検討하였으나 本研究에서는 생략되었습니다. 그러나 自我正體感과 外貌에 對한 自己concept과는 關係가 있다는 것과 自我正體感 下位尺度와 外貌에 對한 自己concept과의 關係, 自我正體感 下位尺度와 外貌上의 個性·同調性과의 關係를 發見함으로서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衣服着用의 性格心理學의 關係의 一端을 該한데 意義를 찾았으면 한다.

引 用 文 獻

- 1) 鄭三好, 전(Jean)을 중심으로한 女大生의 衣服行動에 關한 연구, 淑明女子大學校 碩士學位 論文, (1977)
- 2) Stone, G.P., *Appearance and the Self, In Human Behavior and Social Processes; An Interactionist Approach*, N.Y.; Houghton Mifflin Company(1961)
- 3) Roach, M.E. and Eicher, J.B. *b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Y.; John Wiley & Sons, Inc, 5 (1965)
- 4) James, W.,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2 Vols* N.Y.; Henry Holt Co. (1978)
- 5) 李志求, 李寬鎔, 洪承澈 共譯, 性格의 理論, 中央 適性 研究, 566, (1973)
- 6) 李志求, 李寬鎔, 洪承澈 共譯, op. cit, 567, (1973)
- 7) Snygg, D. and Combs, A.W., *Individual Behavior*, N.Y.; Harper (1949)
- 8) 高永復, 現代社會心理學, 法文社, (1973)
- 9) Erikson, E.H., *Identity and the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1 (Hol)*, 23 (1959)
- 10) Bronson, G.W., *Identity Diffusion in Late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414~417 (1954)

- 11) Dignan, S.M.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3, No.5 (1965)
- 12) Simmons, D.D., Development of objective Measure of Identity Achievement Status, *Projective Techniques and Personal Assessment*, 34, 241 (1970)
- 13) Bronson, G.W., op. cit. (1954)
- 14) Rasmussen, J.E., Relation ship of Ego identity to Psychological Effectiveness, *Psychological Reports*, 1, 815~825 (1964)
- 15) Horn, H.J., *The Second Skin*, Houghton Mifflin Company, Boston, 88 (1968)
- 16) 임춘봉, 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의상행위와의 상관 관계 연구, 연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7) Reed, J.A., Clothing as a Symbolic Indicator of the Self, Unpublished Ph.D., Purdue University.
- 18) 高永復, 現代社會心理學, 法文社, 138 (1973l)
- 19) 高永復, op. cit., 141 (1973)
- 20) Horn, H.J., op. cit., 192~203, (1968)
- 21) 姜惠遠,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1974)
- 22) Russell, S.S., Conformity in Dress as Expressed by Clothing Attitudes of a Selected Group of Adolescent Girls, Unpublished Ph.D., Michigan State University (1960)
- 23) Allport, G., Vernon, P. and Lindzey, G., *Study of Values*,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60)
- 24) Aiken, L.R., The Relation ship of Dress to Selected Measure of Personality in Undergraduate Wome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9, 119~128.